

임기 마친 박찬대·정청래, 민주 당권 경쟁 나서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회견에서 퇴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 마무리...“기나긴 투쟁의 성과 마침내 거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마쳐...“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열심히 하겠다”

민주, 오늘 원내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의 임기가 마무리 되면서 사실상 박 직무대행의 당권 도전이 예측되고 있다. 당권 도전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는 정청래 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박 직무대행은 임기 종료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라며 “윤석열의 파면은 필연이 아니었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침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을 공표했다”며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기나긴 투쟁의 성과를 마침내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당 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주변에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새 정부의 과제, 민주당의 과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사직서를 올리고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어느 자리에 있던 늘 처음처럼 말은바 직

분에 충실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낫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시사했다. 4선의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며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떠올랐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의 법사위 통과를 이끌며 야당 시절 대어 투쟁의 선봉에 섰다. 또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 공동위원장이 광주·전남을 휘젓고 다녔다. 정 의원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총 22일 중 반환점을 둔 지난 22일까지 광주·전남 31개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적으로 당 대표 선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장·차관 국민추천제 ‘뜨거운 관심’

민주당 외 인사도 대거 추천

정부의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다. 특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최강욱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밖 사람들도 대거 추천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비민주당, 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추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박은정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의 법무부 장관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저격수로 각종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사법 개혁 의지

가 높다는 점도 이재명 정부와 코드가 맞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현재까지 혁신당과 박 의원과 직접적인 교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최강욱 전 의원은 사면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영입은 힘든 상황이다. 혁신당과는 다양한 협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왕진 의원에 대한 영입설 등도 끊임 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법무부 장관 추천에 대한 국민 관심이 가장 크고,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도 관심사다. 광주 출신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약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이 기대되고 있고, 이국종 병원장에 대한 추천도 이어지고 있다. 의사단체 쪽에선 이국종 교수를 공개적으로 추천

하고, 부산시의사회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교수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추천을 결정하기도 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역임한 이병훈 전 국회의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 김어준 방담위원장 추천도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실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를 1주일 동안 국민으로부터 추천받는다. 추천 방법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대선 기간 영입된 외부 인사들의 하마평도 나오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는 권오을·이인기 전 의원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김상욱 의원과 김용남·최연숙·허은아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인사도 대거 끝어안왔다. 이에 최근 권오을 전 의원의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전, 컨텍 총장 선임 서둘러야”

조국혁신당 성명...“尹 관련 인사 후보군 유지는 대학 공공성 훼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겸 한국에너지공단(컨텍) 이사장과 컨텍 이사회가 1년 6개월째 공백인 컨텍 총장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총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책임 방기”라면서 신속한 총장 인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컨텍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공약에 따라 설립된 국책 교육기관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면서 “윤석열 전 정부에서 ‘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압박과 조직 흔들기에

시달리다 장기적인 총장 공백상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를 포함한 정치색이 짙은 후보군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컨텍은 정쟁과 정치적 간섭을 넘어 설립목적에 맞는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인물 중심으로 총장 인선 후보군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고려가 아닌 교육의 원칙과 지역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에너지 인재 육성을 위해 서라도 총장 인사의 즉각적인 시행과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지방정가 라운지

“광주FC, 시민구단 한계...기업 합작 구단 전환을”

이명노 광주시의원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는 광주FC를 기업합작 구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명노(서구 3선거구) 광주시의원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시가 시민구단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면, 이제는 기업 중심의 운영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FC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23억 원에 달하며, 연맹의 재정건전화 지표를 위반해 상별위원회가 결정됐고, 수입 과다 계산 및 선수단 과다 지출 구조로 인해 2024년 여름 이적시장 제한 조치를 받은 데 이어, 또다시 규정 위반이 확인돼 강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또 연대기여금 미납부로 인한 부정선수 출장 문제로 23경기가 무효 처리될 수 있어 팬들의 신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 문제도 있다. 이 의원은 “시민구단 체제를 유지하되, 외부 자본 유치와 공동 운영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단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프로구단을 인수 할 만한 기업을 찾는 데 한계가 있지만, 광주FC 인수 의향을 높이는 유인 요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마을단위서 무료 노무사 상담’ 조례안 발의

서임석 광주시의원

광주지역 마을단위에서 무료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임석(남구 1선거구)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광주 시민의 노무상담 접근성 확대와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광주시 마을공인 노무사 운영 조례안’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기반의 노동권 보호를 제도화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장이 마을 공인 노무사를 위촉하면 광주 시민 누구나 무료로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체불임금·부당해고·휴게시간 미보장 등 취약노동 문제에 대한 권리 구제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상담, 근로기준법 컨설팅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서 의원은 노무사 위촉과 상담공간 마련, 운영 예산 확보 등의 구체적인 집행 방안 마련을 통해 광주 5개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서 의원은 “노동권의 보호는 법률적 제도 이전에 접근성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마을공인 노무사 제도가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체계를 넓히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